

시론

‘총회사랑 세례교인 운동’을 제안하며



유선호 목사
평강교회

지난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헌장개정안 중에는 우리 교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사항들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표가 가장 적게 나온 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세례교인 의무금’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찬성 171표에 반대 351표였습니다. 세례교인들이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에 커피 한잔 만 달 마시고 5000원 씩 후원금을 내자는 것으로, 완납한 지방회는 총회 대의원비를 면제시켜주자는 제안이었지만 여지없이 부결되었습니다. 대의원들이 돈 내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총회 주권의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특정 기념주일이 있을 때마다 총회로부터 후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게 되거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특히 규모가

일정 이상되는 교회들은 행사 때마다 재정후원을 부탁 받게 됩니다. 지교회들이 내는 총회유지비만 가지고는 총회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년도 총회 본부의 1년 수입 총액이 10억 6967만 원인데, 그 중 총회유지비 수입은 6억 12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제 103회 정기총회 회의록, P.386.) 물론 전국교회가 총회유지비를 상황조정하여 완납한다면 총회의 재정적자를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인수위원회 총회본부 탐을 맡아 조사한 경험에 의하면 현실은 유지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교회도 상당수였고,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많고, 교세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지비는 매월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갖는 부담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교인 의무금’ 신설안의 부결은 헌장출판 준비과정에서도 마음의 큰 부담이 되었고, ‘총회사랑 세례교인 후원금’이라는 자발적인 후원운동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서 헌장출판위원들을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과도 의견교환과 권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지난 2월 중순에 필자가 속한 서울중부지방회 제37회 정기지방회 진행 중에 총회부서기 김성은 목사님이나오셔서 총회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시던 중 총회재정님의 심각성을 보고하셨는 바, 그것을 듣는 중에 필자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평소 생각해왔던 ‘총회사랑 세례교인 후원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찬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셨고 반대하는 분들이 없

어서 ‘차기 정기총회 직전 5월에 있을 총회주일에 세례교인 1인당 5000원 씩(커피 한잔 값)을 모아서 총회에 보내자는 ‘총회사랑 세례교인 후원금’ 건이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돈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총회가 어떻게 유지되며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 총회 신하에 있는 지방회와 개교회의 성장 역시 일정한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가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장이 정체되거나 쇠퇴하고 있는 교회 현실에서 총회유지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총회 재정 형편을 무한정 방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퇴를 1년여 앞두고 있어서 별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고, 혹자는 생각하기를 “너네 교회나 부흥시켜라”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총회사랑 세례교인 후원금 운동’에 동참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정기지방회가 지나갔어도 매월 열리는 교역자위원회나 임원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개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동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작은 교회들은 개교회적으로 후원금을 모아도 액수가 많지 않으므로 지방회에서 모아서 보내는 것이 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칼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경조 목사
울산신암교회

모습도 양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회와 대형교회들은 군부독재에 편승해서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들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민주화 운동에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치적인 입장과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유보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한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동일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케 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속한 말은 분명 둘로

나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교회마저 세상의 정치싸움에 편승해서 이렇게 편향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죄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들의 목소리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말이고,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社說

기독교인의 정치(政治)참여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명과 공의를 주장하는 진정한 종교는 정치적 권력과 결별하고, 인류의 보편적 구원과 치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것이고 종교는 모두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가? 나라마다 각 나라의 체제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한다. 신정(神政) 정치의 체제에서는 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 경전이 곧 그 나라의 헌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왕권정치의 체제하에서는 왕권의 절대권력이 작동되며, 삼권(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중앙집권체제의 형태로 통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권(民權) 중심 정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통하여 삼권은 분리되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주권의 시대에는 특정 종교가 국교가 되는 종교인치를 배격하고, 국민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각각 개인의 상황을 따라서 정당에 투표라는 방법을 통하여 참여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평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통치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특정 종교가 특정 정부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대차적 접어들어 세게 된다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종교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특정 종교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강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필수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원칙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좌(左)나 우(右)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을 실현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의 현 상황은 탄핵정국에 찬반(贊反)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치적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먼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해야 한다. 그리고 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에 공평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은 국민주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신앙양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정계에 많이 진출시켜서 국가의 정책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실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대의(代議)민주주의가 꽃피고 열매를 맺는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 21:43).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김만수 편집인 권순달 인쇄인 배성현
(주)성경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영종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 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경신문사)

성명서

현재 성결대학교는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으로 마치 선장과 선원이 배를 폭풍 속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형국에 놓여 있다. 현직 전 총회장들은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경각심을 갖고 이를 바로 잡으자 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성결신학원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시정하라

- 1) 이사장 임기가 끝난 박광일 목사를 다시 직무대행으로 선출 - 현장 위배, 불법 행위
- 2) 이사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총회장 명령 불복과 이사회 회의록 위조 - 공문서위조
- 3) 평의회 추천 이사 2인을 실행위원회 허락도 없이 교육부 등재 - 현장 위배
- 4) 총회 파송 이사 2명, 감사 3개월째 승인 보류 - 총회 명령 불복, 이사회 임의대로 운영
- 5) 현장개정에 따른 이사 임기 3년 학교 정관 개정 명령 10개월째 거부 - 총회 권위 훼손
- 6) 2개월 전 선임해야 하는 이사장, 총장을 임기 만료 당일 선출 진행 - 파행유도, 대행 체제 운영

2. 박광일 전 이사장과 이사회 일부 이사들이 교단 헌장을 무시하고, 산하기관 성결대학교를 위기 상황으로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 1) 결국 불법적 직무대행 체제로 박광일 전 이사장이 임기를 늘리려는 속셈이었는가?
- 2) 큰 혼란을 겪었던 과거처럼 총장을 뽑지 않고 본인이나 총장서리를 세워 특정한 유익을 지속하려는 것인가?
- 3) 임기 만료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총장이 선출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본인 또는 대행 체제를 구축해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문제를 야기시켜 교단 학교를 포기하고 학교를 처분할 계획인가?

3. 이런 위중한 사태를 만들고, 교단 헌장을 어겨가며 위기를 키워가는 작금의 현실을 충분히 여건 현직 전 총회장들은 성결신학원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1) 박광일 목사는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현장과 정관에 따라 깨끗이 물러나라.
- 2) 이사회는 절차적 위법한 10대 총장 선출을 무효로, 먼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을 진행하라.
- 3) 공문서위조, 현장 위배와 왜곡, 파송 이사 감사 승인 거부 등 총회 권위를 현저히 훼손한 이사는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소환, 즉각 해임하여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
- 4) 이사회는 파송 이사, 감사를 즉시 승인하고, 정상적인 총장 선출 일정을 속히 진행하라.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교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훼손하고 성결대학교를 격랑 속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멈추고, 현장에 의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사장, 총장 선임 절차 및 파송 이사 승인을 진행하여 교단과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3월 18일

현직 전 총회장 이종복 목사 문정민 목사
김윤석 목사 신현파 목사
조일구 목사